

# 6·10·16·18번환자 격리해제...광주21세병원 모녀 포함

### 첫 2차감염 6번환자 가족 전원 퇴원

### 격리해제 총 16명...46명 중 16명 완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55·남), 10번(54·남), 16번(42·여), 18번(20·여) 확진환자가 19일 완치돼 격리가 해제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완치돼 격리가 해제된 누적 확진환자 수는 전체 환자 46명 중 16명으로 늘었다.

노종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격리를 해제한 환자는 6번과 10번, 16번, 18번 환자”라고 밝혔다.

10번 환자는 국내 첫 2차 감염자인 6번 환자의 부인이며, 아들인

11번 환자(25·남·10일 퇴원)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감염돼 지난 1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첫 3차 감염자이다.

정부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10번 환자는 1월 29일 두통 증상이 발생했고 11번 환자는 30일 몸살 기운이 났다. 11번 환자는 10번 환자의 증상 발현 후 30일 점심쯤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도 일산 소재 미용실 ‘메종드아이디헤어’(백석 벨라시타점)를 이용한 뒤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6번 환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통보받은 뒤 자택에 머물다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11번 환자는 지난 10일 앞서 퇴원한 바 있다.

16번과 18번은 광주 21세기병원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던 모녀 사이다. 18번 환자는 16번 환자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1월 27일 광주 21세기병원에서 인대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중이었다. 16번 환자도 폐렴 등 치료를 받으며 함께 1인실, 2인실을 사용하면서 전파가 이뤄졌다.

앞서 코로나19가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12명이었다. 지난 5일 2번 환자(55·남, 국립중앙의료원)를 시작으로 6일 1번 환자(35·여, 인천의료원), 9일 4번 환자(56·남, 분당서울대병원), 10일 11번 환자(25·남, 서울대병원), 12일 3번 환자(54·남, 명지병원) 및 17번 환자(38·남, 명지병원), 8번 환자(63·여, 원광대병원), 15일에는 7번 환자(28·남, 서울의료원)와 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55·남), 10번(54·남), 16번(42·여), 18번(20·여) 확진환자가 19일 완치돼 격리가 해제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완치돼 격리가 해제된 확진환자 수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번 환자(46·남, 조선대병원)가 퇴원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쯤에는 28번

환자(30·중국인 여성)의 격리가 해제돼 고양시 한양대학교 명지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 18일에는

중국인 부부 12번(48·남)·14번 환자(40·여)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 신규 폐렴환자 1인실 검사→병실 이동...감염률도 조사

정은경 “폐렴환자 전수조사 세부방안 마지막 조율”

해의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가 의심하면 검사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9일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 의심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폐렴환자가 의료기관 1인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한 뒤 일방병실로 옮기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이런 방역 시스템을 통해 병원

내감염,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폐렴환자의 코로나19 감염률까지 조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폐렴 전수 조사는 조사 목적도 있고 지역사

회 신규 폐렴환자가 안전하게 1인실이나 음압격리병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폐렴 입원체계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감염률)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방안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다만 선제적으로 폐렴환자를 격리하려면 1인실과 호흡기병동 구축, 의료진 배치 같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마지막 조율을 진행 중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2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 검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례정의 지침 개정판(제6판)도 시행한다. 개정판에 따르면 감염이 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6시간 신속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확진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격리 13일째(총 격리기간 1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격리를 해제한다. 이 기준에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등을 우선 적용한다.

## 시민단체 “광주지역 고교 참고서 베끼기 출제 만연”

광주지역 고등학교 지필평가에서 참고서를 베끼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일부 고등학교 지필평가 수학 시험지에서 평가지침을 위반해 참고서를 베끼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들은 광주 10개 고등학교의 최근 35개 지필평가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참고서, 사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그대로 출제되거나 숫자나 수식 등 일부만 변경

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끼기 출제’는 전체 문항 중 70% 이상을 차지했고, 100% 똑같이 출제된 문항도 다수 발견됐다.

시민단체는 “베끼기 출제의 문제는 광주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12조 6항을 위반할뿐만 아니라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수많은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교사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학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사 개인의 게으름으로 공교육이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에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의미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본 교재에서 문항이 출제돼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학생에게 공개되는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 중 적합한 문제를 선정해 출제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조합장 선거 경쟁후보 차량 위치추적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로 순천의 모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가 늦어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순천경찰서와 진정인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합장 A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쟁 후보인 B씨의 동선을

파악할 목적으로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이상한 물체가 부착된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인 9월 13일을 한 달여 넘긴 10월 말에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